# 환 영 사

2026. 11. 24.(화)

시그니엘 부산

금융감독원

원장 이 찬 진

# Ⅰ 인사말

안녕하십니까?
**금융감독원 원장 이찬진**입니다.

**'2026 부산 해양금융위크'**에 참석해주신
국내외 귀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

먼저, **국내 해양수도 부산**의 **발전**을 위해
힘쓰고 계신 **전재수 부산시장님**과 **오석근 부시장님**,
그리고 행사를 준비해주신 **부산시**와
**해양진흥공사, 부산국제금융진흥원**의
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

2021년 11월 **첫 문**을 연 본 행사는
**국내외 해양·금융 전문가**들이 모여
서로의 **경험**과 **지혜**를 나누고
**해양산업**과 **금융**의 **접점**을 넓혀가는
**교류의 장**으로 발전해 왔습니다.

금번 행사를 통해서도
**해양수도 부산**의 **새로운 기회**를 **발견**하고
앞으로의 **발전**에 **보탬**이 되는
**유익한 논의**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.

## Ⅱ 부산 해양 금융중심지 현황과 과제

이곳 부산은 2009년 **금융중심지 지정** 이후
**국내외 해운·금융기업**의 **집적**,
**해양금융 특화 인프라 확충** 등의 노력에 힘입어
**한국 해양금융**의 **중심지***로 **발돋움**해 왔습니다.

* 부산은 국제금융센터지수 22위('26년), 세계 해양산업도시 순위 10위('24년)을 기록

**북극항로 시대**를 맞아
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**해상교역**의 **관문**으로서
향후 부산의 **역할**과 **중요성**은 **더욱 커질** 것입니다.

다만, 현재 **세계 해양산업**은
**핵심 해상항로**를 둘러싼 **지정학적 긴장**으로
**글로벌 교역 환경**의 **불확실성**이 **증대**되고,

**디지털 기술**의 **발전** 및 **글로벌 공급망 재편**으로
**산업 전반**의 **구조** 또한 빠르게 **변화**하는 등
결코 **녹록치 않은 환경**에 **직면**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**전환기**에
**미래 성장 기회**를 선제적으로 **포착**하고
**실질적인 투자**와 **성과**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

그간 **국내 해양산업 발전**의 **핵심 동력**이었던
**정책금융**과 더불어 **민간금융**의 **참여**와 **역할**을
**점차 확대**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.

**정책금융**이 안정적으로 **뒷받침**하고
**민간금융**이 다양한 **투자 기회**를 **발굴**하며
**상호 보완적인 역할**을 해 나간다면
**부산 해양금융**의 **저변**도 한층 **넓어질 것**입니다.

금융감독원 또한
**지자체** 및 **유관기관**과 **긴밀한 협력**을 통해
부산이 **글로벌 해양금융중심지**로 **자리매김**할 수 있도록
**노력**과 **지원**을 아끼지 않겠습니다.

## Ⅲ 맺음말

내외 귀빈 여러분,

오늘 이 자리가
**부산**의 **미래**를 향한 **다양한 구상**이 **공유**되는
**뜻깊은 장**이 되기를 바라며,

바쁘신 와중에 귀한 걸음 해주신
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**감사의 말씀**을 드립니다.